

‘무등산 폭격기’ 떴다

선동열 감독 한일 레전드 매치 연습 투구

130km대 예리한 슬라이더에 선수들 탄성

무등경기장 불펜에 ‘무등산 폭격기’가 떴다

한일 레전드 매치의 한국 선발인 KIA 선동열 감독이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불펜에 섰다. 1995년 이후 17년만의 무등경기장 등판, 스파이크까지 챙겨 신고 불펜에 오른 선 감독은 22개의 공을 던지며 사람들에게 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무등산 폭격기’의 예열은 현역 최고의 슬라이더를 보유한 윤석민 보다 더 좋은 슬라이더를 던졌다는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18일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선 감독이 “연습을 해야겠다”며 스파이크 수소문에 나섰다. 마침 윤석민이 선 감독과 같은 270mm 윤석민은 감독님을 위해 새 스파이크를 꺼내들고 왔다.

에이스 윤석민의 빨간 스파이크로 같아진 선 감독이 마무리 쇠험남의 글러브를 들고 그라운드에 오르자 선수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가득한 미소가 펴졌다. 캐치볼에 이어 불펜에 올라 정식으로 공을 던지자 선수들의 표정은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예전의 날렵함은 없지만 미운드를 흐령 하던 선수 선동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편안하였다.

공식적으로 스피드를 재지는 않았지만 공

을 받은 불펜 포수 전경호와 전력 분석팀이 예측한 스피드는 130km대, 스피드보다 더 선수들의 입이 벌어지게 한 것은 슬라이더였다.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의 움직임에 구경꾼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현역보다 낫다는 평가와 함께 슬라이더, 직구, 커브를 던지며 선 감독은 한일 매치에 대한 대비를 끝냈다.

전설의 피칭을 눈앞에서 지켜본 선수들의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밸런스가 좋다”, “감독님이 저렇게 던져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윤석민의 슬라이더보다 좋다” 등등.

해외파 서재옹도 땀범벅이 되어 덕아웃으로 들어서는 선 감독을 향해 “저 슬라이더 좀 주십시오”라며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

선 감독은 “윤석민의 스파이크를 신고 던져서 잘된 것 같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일본에서 변화구를 구사할 때 유인구성으로 원바운드로 던져본 했는데 오늘도 던져보니 변화구는 원바운드로 가더라”며 “내일 몸살 나는 것 아니냐”고 웃었다.

선 감독은 지난 2005년 은퇴 후 올스타전에서 140km의 강속구를 던진 적이 있다. ‘무등산 폭격기’의 등판은 오는 20일 잠실 구장에서 열리는 한·일 레전드 매치에서 이뤄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감독 피칭 지켜 본 선수들

“윤석민의 고속 슬라이더보다 좋다”

“감독님이 저렇게 던지면 우린 어떡해”

서재옹 “슬라이더 저한데 주십시오”



18일 오후 광주구장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선동열(49) 감독이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오는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일 올스타 매치 출전에 대비해 ‘몸 만들기’에 들어간 선 감독은 이날 20개의 공을 뿐였고 직구 시속은 130km대 초반을 짚었다.

‘미스터 올스타’ 뉴 쏘렌토 R 탄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시상

홈런레이스 우승 300만원

2012 프로야구 ‘미스터 올스타’에게 뉴 쏘렌토 R이 주어진다.

오는 21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시상 계획이 발표됐다. 별종의 별 미스터 올스타에게는 트로피와 자동차가 부상으로 주어지고 올스타전 승리팀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승리팀 감독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승리 감독상이 수여된다.

최다 탈삼진상, 우수 타자상, 우수 투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가 주어진다. 전직 프로야구 사장들의 모임인 선구회에서 수여하는 미기상 수상자는 2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는다.

‘홈런레이스’ 우승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주어진다. 준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최장 비거리 기록한 선수에게는 태블릿 PC가 증정된다.

정교한 번트 실력을 겨루는 ‘번트왕’ 행사도 신설된다.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이 수여된다.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 최다득표자인 롯데 감독은 최고 인기상 수상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철 투수코치 “감독님 마무리로 뛰시죠”

① 덕아웃 말말말

▲미안했나보지 = 17일 두산과의 경기에 윤석민을 계투진으로 투입한 선동열 감독, 본인이 직접 등판을 지원했다며. 윤석민은 앞선 14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1과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조영훈은 어제 포커를 접았어 = 배팅훈련을 지켜보던 선동열 감독, 조영훈이 전날 경기에서 4타석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다며.

▲마무리로 임명하겠습니다 = 이강철 코치, 불펜 피칭을 마친 선동열 감독이 대기시켜주냐고 농담을 하자.

▲괜찮아요(슬픈 표정으로) = 코뼈 염좌로 올스타전 출전이 무산된 김선빈, 베스트 10에 뽑혔던 지난해에도 코뼈·광대뼈가 골절되면서 올스타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웨스턴 리그 사령탑인 선동열 감독은 김선빈 대신 한상훈을 감독 추천 선수로 선정했다.

▲끝나고 밤이주지, 나자완을 뒷해라 = KIA 프린트, 김현수에게 투련포를 허용하며 5이닝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된 서재옹에게 장난을 치며. 김현수는 전날 경기에 앞서 밀다툼 논란을 빚었던 선배 나자완에게 사과를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도대항 실버 볼링대회

내일 강진에서 개막한다

제3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실버 볼링대회가 20일 강진에서 개막한다.

제4회 청자배를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

에는 전국의 아마추어 볼링 동호인 600여 명이 참가하며 오는 22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대회에 참석하는 임직원들은 대회 성적과 관계없이 대회 마지막날까지 함께 하면서 시도간 우호와 친선 교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충부취재본부=남칠희기자 choul@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광주도요산악회 회 T.010-3609-8345, 010-7644-1301

참조 T.010-3608-4267, 010-3624-2849

▲광주향토도요산악회 완도 보길도 격자봉 전계곡 7월22일(일) 6시40분 암주체육관, 7

분야(예수리해수욕장) 7월21일(토) 7월21일(토) 7시10분 동광주홈플러스

시대인광장, 유통기획 7월21일(일) 7시10분 동광주홈플러스

온라인(06시), 광주여(15분), 비엔날레주차장

30분) *다음카페 : 광주희망토요산악회 3357, 010-6886-9106

T.010-9602-3925, 010-7750-7210

▲산과희망 장한 억불산~꿔우드랜드 7월

22일(일) 07시40분 암주체육관(전월동 지

하늘 소태역 경유) *다음카페 : 산과희망

7월19일(목) 운전기사 7월21일(토) 7시10분 대인광

7월21일(토) 7시10분 대인광 7월21일(토) 7시10분 대인광

7월21일(토) 7시10분 대